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1호 [무제 제26215호] 주제 107 (2018) 년 12월 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여러 대상건설 마감단계

합경북도에서

각 당조직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합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남비료연합기업소, 2.8 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으로 새창에 끓고있는 도안의 증요일군들께 나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자기 부흥,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깊이 학습하면서 그 진수를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합남의 불건과 더불어 새겨진 김제사원의 불멸의 령도사육을 승려자동차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현시지도 1호를 맞으며 뜻깊은 올해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빛나게 집행하였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무장하여 애국의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파란만장한 돌격전을 벌여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 한결같이 밀려나 불굴의 헌신적인 투쟁을 벌인 이북 일군들과 로동자, 청년부흥 일군들,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대중영웅주의가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트랙트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풍장을 맞으신

각 당조직에서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전사관철해 나감 신념과 의지를 굳혀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뛰어나신 총남비료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스화공정의 설비대보수를 다그쳐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설비조립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은 집결의 주제 확대생산실현공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장사들을 받아안았으며 지난 9월말까지 년간 공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때론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철련합기업소, 파남관광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합경북도안의 평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만능의 때과 전사이라는 철칙의 신념을 새

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함판, 현지도로교양을 통한 교양, 해외담화과 학습담화, 학습토론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부흥,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뼈에 새기고 그 집행을 위한 방도를 찾게 되었다.

평안남도안의 판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수평의 특장기구연합기업소, 개천지구판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박장에 불어가 전투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데 힘을 넣었다.

전투현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지도과업전환에 힘입어 대대적으로 대공무수행하는 경제선봉의 복속과 새창에 울려다졌다.

일군들은 기동출연동태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사업들을 공세적으로 벌여나온 전투장기 혁명열, 투쟁열로 부급부급을 높였다. 특히 일군들은 동태에 맞는 사명과 온정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열의안고 한사함같이 밀려나서도록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소재 생산부분의 일군들과 당원들을 맡고 내려간 당, 령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2. 8 직종정년판공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조향별로 새겨주어 하나 둘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북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발동하여 추사를 개진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해놓았으며 어디까지 미루지시사당도 무려 놓았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후방사업을 개진하고 영양제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신을 주범, 힘벌로 총화하며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

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기 하고 있다.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당조직에서는 시장위원회와 적극적인 방축에 총합축산분장에 능민정양소를 새로 꾸렸다.

구장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높은 목표에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다.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영주군, 파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한 사업을 당일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필장에서 작전하고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일관성있게 내밀어 헌신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투쟁을 승리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파격히 밀려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합경북도에서 주요대상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띠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사업들을 진공적으로 벌여왔다.

도에서는 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데 맞게 선우자를 출제 정하고 건설대상들에 따르는 노력과 불원기제, 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르세웠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힘있게 고취된 혁신적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벌여 주요건설장들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이 차넘치게 하였다.

도금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시, 군, 구역들에서는 말은 대상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계획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도 일군들은 돌격대를 못 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달려나가 이신력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상조로 불러일으켰다.

도당건설공작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합리적인 건설공업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부흥되는 자재와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건축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헌신을 창조하였다. 도인민위원회 일군들과 도안의 보건부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여러 대상의 건축공사와 수배의 구내교양장, 잔디입기, 유타리공사를 계속하였다. 공장내에 휴식터와 배구장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정전국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열풍을 새창에 일으켜 몇개월동안에 작업량이 방대한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공사를 해제하였다. 또한 지붕트라스케와 설치를 끝내고 지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쳤다.

정전시 청안구역 직하리소재

지건설에 펼쳐나온 돌격대원들은 백수집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을 일떠세우는데 이어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유지원, 약사소, 직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쳤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원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명천배기총아사업소건설이 적극 추진되었다.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업용 배기터에 10여동에 달하는 건물건설을 계속하였다.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업용 배기터에 10여동에 달하는 건물건설을 계속하였다.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업용 배기터에 10여동에 달하는 건물건설을 계속하였다.

도안의 단원들에서 대상건설을 풍신함으로 적극 도우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대상건설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성과

년간 화물자동차생산계획을 수행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요 새형의 화물자동차도 출현해오며 개발상조형자동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데 나서는 당중앙과 당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지도과업전환에 힘입어 대대적으로 대공무수행하는 경제선봉의 복속과 새창에 울려다졌다.

일군들은 기동출연동태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사업들을 공세적으로 벌여나온 전투장기 혁명열, 투쟁열로 부급부급을 높였다. 특히 일군들은 동태에 맞는 사명과 온정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열의안고 한사함같이 밀려나서도록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소재 생산부분의 일군들과 당원들을 맡고 내려간 당, 령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2. 8 직종정년판공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조향별로 새겨주어 하나 둘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북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발동하여 추사를 개진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해놓았으며 어디까지 미루지시사당도 무려 놓았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후방사업을 개진하고 영양제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신을 주범, 힘벌로 총화하며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

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기 하고 있다.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당조직에서는 시장위원회와 적극적인 방축에 총합축산분장에 능민정양소를 새로 꾸렸다.

구장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높은 목표에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다.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영주군, 파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한 사업을 당일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필장에서 작전하고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일관성있게 내밀어 헌신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투쟁을 승리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파격히 밀려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합경북도에서 주요대상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띠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사업들을 진공적으로 벌여왔다.

도에서는 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데 맞게 선우자를 출제 정하고 건설대상들에 따르는 노력과 불원기제, 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르세웠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힘있게 고취된 혁신적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벌여 주요건설장들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이 차넘치게 하였다.

도금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시, 군, 구역들에서는 말은 대상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계획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도 일군들은 돌격대를 못 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달려나가 이신력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상조로 불러일으켰다.

도당건설공작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합리적인 건설공업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부흥되는 자재와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건축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헌신을 창조하였다. 도인민위원회 일군들과 도안의 보건부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여러 대상의 건축공사와 수배의 구내교양장, 잔디입기, 유타리공사를 계속하였다. 공장내에 휴식터와 배구장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정전국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열풍을 새창에 일으켜 몇개월동안에 작업량이 방대한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공사를 해제하였다. 또한 지붕트라스케와 설치를 끝내고 지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쳤다.

정전시 청안구역 직하리소재

지건설에 펼쳐나온 돌격대원들은 백수집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을 일떠세우는데 이어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유지원, 약사소, 직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쳤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원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명천배기총아사업소건설이 적극 추진되었다.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업용 배기터에 10여동에 달하는 건물건설을 계속하였다.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업용 배기터에 10여동에 달하는 건물건설을 계속하였다.

도안의 단원들에서 대상건설을 풍신함으로 적극 도우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대상건설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현시지도 1호를 맞으며 뜻깊은 올해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빛나게 집행하였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무장하여 애국의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파란만장한 돌격전을 벌여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 한결같이 밀려나 불굴의 헌신적인 투쟁을 벌인 이북 일군들과 로동자, 청년부흥 일군들,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대중영웅주의가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트랙트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풍장을 맞으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현시지도 1호를 맞으며 뜻깊은 올해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빛나게 집행하였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무장하여 애국의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파란만장한 돌격전을 벌여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 한결같이 밀려나 불굴의 헌신적인 투쟁을 벌인 이북 일군들과 로동자, 청년부흥 일군들,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대중영웅주의가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트랙트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풍장을 맞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트로 루스동지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메히코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귀국하는 길에 꾸바를 경유하면서 4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에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트로 루스동지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울 까스트로 루스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를 까스트로 루스동지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였다.

라울 까스트로 루스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렸음을 부파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미젠 마리오 디아스 까벨 페르투에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의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과 꾸바 두 나라사이의 친선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라울 까스트로 루스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동지께서 새로운 전략적외선 관철에 펼쳐나신 조선인민의 투쟁을 명도하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대성동지, 꾸바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마시수동지와 브루노 로드리게스 바리라 꾸바공화국 외무상이 참가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각기 고치생산 사업소에서 누에고치생산을 높이는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봉방 정도당 500kg이상의 누에고치 생산한 17개의 다수확자 집단 (본조)과 500kg이상, 최고 11이상을 생산한 수백명의 다수확자가 배출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누에고치생산도 잘하여야 합니다.』

총리고치생산사업소 통인작업장에서 다수확자들의 불길을 새창에 지펴올렸다.

작업반에서는 봉방 정도당 2만2천이상의 봉나루를 낚고 고치제를 기술적으로도 진행하여 봉인생산을 높였다.

작업반원들은 앞선 누에치기 기술을 습득하고 병해충구제에 효과적인 소득방법을 받아들였다. 이전에 비해 소득 효과가 좋은 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누에의 생존률을 훨씬 높였다.

작업반원들은 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하고 배운 지식으로 뜻밖의 정황에 능숙하게 대처해나갔다. 또한 작업반수에서 태지, 염소를 비롯한 수십마리의 짐승을 기르는 동시에 새끼닭을 2마리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메히코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메히코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대통령궁전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레스 오브라도르대통령을 만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레스 오브라도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렸음을 부파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미젠 마리오 디아스 까벨 페르투에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의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소 베네수엘라총리바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중국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마시수동지와 브루노 로드리게스 바리라 꾸바공화국 외무상이 참가하였다.

35t의 총부산물비와 많은 거품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로운 생산을 높였다. 상복현에 분조원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한사함같이 밀려나갔다. 끈주에잠실을 건설하고 그안에 40cm두께로 벽면과 바닥에 풀을 깔아주고 열을 자주 갈아주어 누에살성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봉방 정도당 51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올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였다.

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많은 다수확자가 배출되었다. 울진고치생산사업소 총장작

【조선중앙통신】

금과이를 생산하여 지력을 높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로운 생산을 높였다. 상복현에 분조원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한사함같이 밀려나갔다. 끈주에잠실을 건설하고 그안에 40cm두께로 벽면과 바닥에 풀을 깔아주고 열을 자주 갈아주어 누에살성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봉방 정도당 51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올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였다.

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많은 다수확자가 배출되었다. 울진고치생산사업소 총장작

지난해보다 많은 다수확자 배출

각기 고치생산사업소에서

35t의 총부산물비와 많은 거품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로운 생산을 높였다. 상복현에 분조원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한사함같이 밀려나갔다. 끈주에잠실을 건설하고 그안에 40cm두께로 벽면과 바닥에 풀을 깔아주고 열을 자주 갈아주어 누에살성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봉방 정도당 51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올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였다.

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많은 다수확자가 배출되었다. 울진고치생산사업소 총장작

의 활판 주인, 능숙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뛰어난 정통한 실능이 되어 비록하게 걸거였다. 올해 고온피해를 막기 위해 가시막안에 풀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찬물을 갈아대면서 이악하게 노력하여 1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였다.

이들처럼은 한해 승결한 밤을 바쳐 누에고치농업을 이룩한 다수확자들은 수백명에 달한다. 이들이 쌓아올린 누에고치산은 다수확농동을 힘있게 발휘하는 데에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낮은 자란 결실이다.

오은별

금과이를 생산하여 지력을 높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로운 생산을 높였다. 상복현에 분조원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한사함같이 밀려나갔다. 끈주에잠실을 건설하고 그안에 40cm두께로 벽면과 바닥에 풀을 깔아주고 열을 자주 갈아주어 누에살성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봉방 정도당 51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올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였다.

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많은 다수확자가 배출되었다. 울진고치생산사업소 총장작

금과이를 생산하여 지력을 높였다. 그러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로운 생산을 높였다. 상복현에 분조원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한사함같이 밀려나갔다. 끈주에잠실을 건설하고 그안에 40cm두께로 벽면과 바닥에 풀을 깔아주고 열을 자주 갈아주어 누에살성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봉방 정도당 51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올해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였다.

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많은 다수확자가 배출되었다. 울진고치생산사업소 총장작

과학교육발전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년풍을 아로새긴 주제 107(2018년 18일).

세인을 놀래우는 충격적인 사면들과 경이적인 성과물로 위대한 시대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이례의 날과 달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인민의 추억은 희귀하다.

정령 이렇게 흘러온 나날이던가, 주제조선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지만 후보의 동요나 순간의 주저도 모르고 위대한 당의 손길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의 불길같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달려온 우리 인민이다.

그 성스러운 행로는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넋을 단장시켜주시며 불변불퇴의 애국헌신으로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자욱자욱으로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과학교육부문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장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반대책의 사업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하나의 구호가 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세계적인 불수폭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목표를 열고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제강국으로 만들어 주재혁명위원의 명맥을 장창하게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승고한 뜻이 력력히 어려온다.

지식경제시대를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밝은 전도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

된다.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강자가 된다는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이다.

전략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규정하시고는 나라에 과학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을 일으키거나 고고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과학교육발전의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힘있게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강용한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며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는것이 아니라.

주제 107(2018)년 4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세기에 비상한 용격과를 일으킨 현수님의 력사적인 회의에서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장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반대책의 사업이다!

나라를 지속속으로, 전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날려야 한다!

천리해의 예지와 선지정성이 맞닿는 절세위원의 귀중한 가르치심이 이 영한 승리를 담보해주는 계원으로 성스러운 역사의 한페이지에 새겨졌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령단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

강국, 인제강국건설의 막자를 가하는 세력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본부에 토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과학자, 기술자뿐만이 아닌 우리모두가 예부터 절감왔던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과학기술중시, 교육중시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조국의 운명과 민족민단의 번영을 내다보는 평등사민이 과학교육사업을 가장 중대한 문제, 조비의 문제로 내세울수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과학교육발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철칙의 의지와 정력적인 헌신의 자욱으로 아로새겨진 나날이었다.

이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생생히 인겨온다.

높은 과학기술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장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반대책의 사업이다!

나라를 지속속으로, 전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날려야 한다!

천리해의 예지와 선지정성이 맞닿는 절세위원의 귀중한 가르치심이 이 영한 승리를 담보해주는 계원으로 성스러운 역사의 한페이지에 새겨졌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령단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

확신성있게 내다보시는 현수위원의 우형우형하신 용성은 일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자립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못하고 우리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실과 도안상과실을 훌륭히 무려놓았다고 치하해주신 우리 현수님이다.

삼복철강행의 나날 강철도 양보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통한 기술혁신을 장려하시고 양보장들의 경험교훈, 혁명적세계관, 세뇌 동원들의 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선진적인 나무모재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완성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제 이뿐이랴.

지난 6월말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군안의 소학교, 중학교들도 잘 지켜주어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함으로써 심사람들이 도시부림이 없는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진정 나라의 현사민사를 돌보셔야 하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과학교육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력사적 구호가 빛날 승고한 회복을 펼치신 우리 현수님이다.

정말 70대를 맞은 김책공업총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기업사건을 찍어주시며 대학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현수님을 우러러 버치던 격정의 환호성이.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호를 펼칠데 있어서 김책공업총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부처, 기관차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업사건을 찍으시었다.

그 불멸의 회복에는 과학과 교육을 최대로 중시하고 과학교육사업의 발전을 혁명발전의 최우선적과제로 내세우고계시는 절세위원의 승고한 뜻이 뜨겁게 울려져있다.

사투리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중시를 그처럼 강조하시며 과학기술기관이나 교육부문이 아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과학기술인, 경제적인가 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창의고인의 명수, 발명가들 되어야 한다고 고무해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자랑분이 되고 비약과 진전의 밑거름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이 가슴뿌듯이 안겨온다.

황해세월혁명기념소와 천리마세월혁명기념소를 비롯한 여러 단에서 많은 선진기술이 도입되어 금속공업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전력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었다.

온 사회에 퍼지는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속에 새힘의 무력도전자들이 수도의 네거리를 달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무지척들이 사회주의협동법을 누비는 호젓한 광경이 펼쳐졌다.

뜻깊은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많은 농장에서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용영을 통하여 창의고인명수, 발명가대열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인 결과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혁신의 불길은 교육부문에서도 세차게 타고올랐다.

올해 각 도시, 군에서 본보기학교들을 꾸리며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체육대학, 도대원도학원, 도중학교, 청소년체육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모든 성과들은 과학교육사업의 발전을 혁명발전의 최우선적과제로 내세우고서 혁명행에 이끌려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령단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빛나는 관철으로 전방,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계시어 우리 조국은 최후승리의 행마부를 향하여 독룡처럼 내달려나간다.

한없는 창조와 자부심에 넘쳐 뜻깊은 올해를 돌이켜보며 인민은 혁명의 목소리를 따른다.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과학기술중시, 교육중시의 열풍속에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우리 조국, 회세의 현수님을 높이 모시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미추해가는 주제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이 없!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세계적인 불수폭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목표를 열고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제강국으로 만들어 주재혁명위원의 명맥을 장창하게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승고한 뜻이 력력히 어려온다.

지식경제시대를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밝은 전도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

고귀한 부름, 값높은 칭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이며 가장 핵심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주제 101(2012)년 9월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창건기념식에 임하신 어느 날 교육자정신을 찾으시었다.

몸집에도 튼튼했던 경애하는 현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모시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교육자부부는 세한 격정으로 꽃피어있는 가슴을 안고 그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현수님, 새 집에서 살고있는 행복만도 풍만 같은데 이 몸소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움에 흐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집주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새 집을 받았다는 데 집이나 구경하자고 하시며 집안으로 들어서시었다.

생활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헤어보시던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새 두주에 대해 무슨 일을 하는가, 딸들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안애와 딸들이 모두 교원이라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이 가정은 군사복무할 하는 아들을 내놓고 모두가 교육자정신에 이인 가정은 정말 힘직 않다고 치하해주시었다.

응답 해야 할 일을 하듯 애를 아끼까지 자랑할만 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자기들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울음바를 흘려하였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가족들을 둘러보시며 이 집에 대학교원도 중학교교원도 다 있는데 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중학교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교육사업을 대단히 중시하고있다고,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어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학생들을 중학교교원에게서 잘 배워주어 대학에 보내야 대학교육도 잘되고 나라의 과학기술도 발전할수 있다고 절실히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던 김지 않은 시간에도 후대교육과 관련한 그토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랴.

잠시후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안애와 딸들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있는가에 대해하시기도 물으시었다.

물리과목과 수학 과목을 배워주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수학, 물리가 중요하다고, 자신께서는 이 교육자가정의 선생님이 자기 사업을 잘 할나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교육자들을 한없이 존대하고 내세우시며 정당한 교원들을 선정한 애국자로 학생을 빛내게 살렸다고.

이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교육자들은 누가 보던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 목숨까지 희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키우는데 함의를 바쳐가는 애국자가정이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시었다.

우리 현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들 다 바친 사람만이 알아안을수 있는 애국자라는 값높은 부름을 안겨주시며 애국자가정이라고 정당히 불리실 때 온 가족은 부끄럼 없는 격정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쌍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를 더 잘 키워나가기를 비하시는데는 그의 크나큰 믿음과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고 그들은 심장의 땀을 다지었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성실한 교육자, 진정한 애국자로 학생을 빛내게 살렸다고.

오 험 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공화국 창건 70돌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뜻깊은 한해를 돌이켜보며 새겨지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하여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철한 두뇌라는데있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올해의 첫 현지지도를 하신 곳은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국가과학원이다.

이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관에 이어 과학원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을 지적자원의 창고, 국가과학원의 지적자원의 고창성이라고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모든것이 무용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다고 기뻐하시었다.

이것은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만이 아닌 새해의 전군급에 펼쳐나선 경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그 어느 부분, 그 어느 단위에 가서든 과학기술을 앞당기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대해 강조하시고도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념을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으려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 세기를 앞서 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를, 실력을 힘있게 갈고 닦고, 적극 참여하여 우리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제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위대한 가르치시는것이 바로 과학기술발전의 원동력이다. 이 모든 결실은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더욱 깊이 새겨안은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원 남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과학교육성장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있다. -김책공업총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리 봉 규 찍음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연관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대 당조직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변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 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여러 모임마다 혁명 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대중에게 깊이 계몽시키고있다.

이것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교과들에 대한 학습을 체계화하여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종원들의 가슴마다에 아버지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그리고 혁명 과 건설에 찾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위대성교과들에 대한 독보 및 연구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눈이 보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피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는 불후의 고전적교과에 대한 배설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헌신로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성의 위인이시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위대성교양사업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목을 더욱 가슴깊이 새긴 이북 종원들은 경애하는 현수님의 령도를 높은 진명성신과로 말 붙여나감으로써 장군님의 유훈대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로동통신원 김 릉 식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큰 자원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면 우리가 무엇에 의거하여야 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시기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가장 큰 자원은 자체의 과학자, 기술자력량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를 오늘날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데서 과학기술인재들의 지위와 역할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과학기술이 중시되고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흥하고 끊임없는 번영이 담보되게 된다.

우리에게는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대우가 있다. 우리 당은 부강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자체의 과학기술인재대우를 육성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그 역량을 의거하여 거창한 사회적번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본론히 무장하고 높은 기술실무능력을 소유한 인재를준은 그 수없이오세대에 신랄할수 없는 경제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된다.

현시기 우리앞에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적진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쟁취하여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이룩하는 전수적사업으로 수행해나가자면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

을 밀고나가야 한다. 여기에 적대세력들의 강도적인 경제봉쇄를 물리쳐서 인민들과 화를 북돋고 전진시키며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은 우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활동의 동력을 세차게 흘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재부이다.

우리 당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정성화의 동력을 세차게 내리고 전야마다 중요한 가용을 마련함에 대한 전두투과업을 제시하였다. 생산정성화의 일러는 과학기술발전이 있으며 여기에서 기 본은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생산정성화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어디에서나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원료와 자재, 설비, 자금과 노력이다. 경제봉쇄를 피우려 수단으로 삼고있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은 생산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다그치려는 우리의 앞길에 어떤 난관을 던져서 유비한 때가 오기만은 언더기다. 나만의 도용을 기대를 건다면 언더기다. 생산을 활성화할수 없다. 지금이아름 도외에 대한 완성, 남에 대한 의존성 을 철저히 뿌리뽑고 직접생산, 자금자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할 때이다. 어느 부분,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생산정성화의 예비를 과학기술발전에서 찾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훈련시켜 우리 고적구 발흥시 때를 이른과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중진의 동력을 올려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연구사건과 인민경제의 각 부문과 단위에 있는 기술자, 기능공력량은 대단하며 그들의 창조

적의해와 힘은 무궁무진하다. 선의주화장용공정만 놓고보아도 이 공정의 연구사, 기술자, 기능공들은 통합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경영관리와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화장용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6월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같이 맹제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질 좋은 화장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있는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 누구나 이를처럼 자기 단위의 발전의 지름길을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찾고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중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릴 때 인민경제전반이 상승해 도에 확고히 올라설수 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은 또한 나라의 경제를 추격적이며 현대적인 경제로 건설해나가는데서 귀중한 밑거름으로 된다.

현시기 우리가 중산돌격운동을 벌리는 데는 먼저 생산부문, 단위들을 추세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전방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자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제, 지식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인민경제의 지립성은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의거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지금 경제의 지립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했것은 에너지기본체를 해결하고 설비와 원료, 연료, 자체의 극산화를 실현하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것이다. 이 문제해결에 절 싨한 리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직접생산 담당자는 다름이던 우리사민이다. 남이 우리의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

베풀고 도와나설수는 없다. 누구보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동시킨 인민경제의 지립성과 추세를 강화하는데서 나만의 과학기술적재능을 열거하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자립적경제의 발전잠재력이 최대로 발양될수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 역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떠나서 할수 없다.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과학 연구기관과 대학들, 과학자, 기술사들과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 리던데서 우리는 최단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울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과학자, 연구사, 기술자, 기능공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싨한 의의를 가진 문제들을 대담하게 맡아내고 명석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오늘의 중산돌격운동에서 한층 단단히 해야 할 담당자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내와 인내를 뛰어넘는 조국의 발전속도를 과학기술로 담보해나가야 할 기수들도 우리의 인제집단이다. 위대한 주제 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한 명도가 있고 당의 위업을 무한히 추심하며 높은 혁명성과 창조력을 지닌 과학자, 기술사건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빠지지 못할 난관, 절명 투쟁 요소가 있을수 없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뇌적, 기술적, 탐구성을 힘있게 떨쳐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명 주 력

삼자연군구리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마감건재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자

백두전구가 우리를 지켜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부름이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얼어나 산도 옮기고 배도 매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쁨입니다.》

올해야만도 여러차례나 삼자연군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한 상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신약같이 일떠섰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 유령에지배인으로 모신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향군을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가장 고집철착 애국충정의 마음을 버리지, 백두전구를 그려보며 이런 심정의 명세를 다진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세멘트중신을 위한 결사전에 전진하였다.

연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대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중의 장인력을 총괄발시기 위한 사상공세의 위대한 표본을 열었다. 전무장마에 증산물리전으로 부르는 쿠로와 전무속보, 직관관들이 나붙고 대중의 심장을 직동시키는 힘찬 노예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10월 중순에 진행된 2호소성공대보전투, 200여시간동안 진행된 대보수전투는 그대로 상원로동계급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마음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킨 결사의 나날이었다.

일출동원에 대보수를 끝내고 세멘트중신을 시작할 높은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작전과 지휘를 띠고있어 진행해나갔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일군들이 있었다.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제일 무거운 짐을 전사람도 다름아닌 일군들이었다. 소성로대보수를 맡은 축로직장에서는 또 어떤 위훈이 창조되었는가.

축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제일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 소성로송구이치초조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한들기 포 한들기 내화벽돌을 쌓아가던 그들앞에 예견치 못했던 정황이 조성되었다. 필요한 작업반원이 미처 보강되지 않았던 것이다. 말판이 도착하려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어야 하였다.

중신의 동음이 울려 퍼지는 연합기업소의 구내는 그대로 흥분성있는 전투장이었다.

지난 10월말 어느날이었다. 작업을 진행하던 소성직장의 평가자 2작업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호소성로에서 구워진 크럼카를 식히는 평가자의 한 반원이 떨어졌던 것이다. 불린을 제자리에 맞추려면 즉시 소성로를 멈추고 배롱장치를 가동해야 하였다. 하지만 그렇기 한다면 생산공정이 가동중 멈추게 되고 삼자연지역에 보내줄 세멘트중신이 늘어질 수 있었다.

그때 어떤 순간 불덩어리들이 이글거리는 속으로 서슴없이 떨어뜨리는 바람이 있었다. 파랑색, 파랑색 불뿔이 있었다.

《백두전구가 우리를 지켜보고요, 나를 따라 앞으로!》

그들의 위훈 따라 결사의 작

업은 단정약한 작업반원들이 앞을 다투어 뛰어올랐다.

시멘트계 단 크럼카들이 소성로에서 연방 울러나오고 열기로 하여 숨이 쉼이 막혔다. 바다에 한발씩 걸음씩 불덩어리들은 작업반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몰랐다.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지니고있는 그들이 어떠한 불을 두려워하랴.

불라는 애국충정은 위훈을 낳았다. 작업반원들은 소성로를 멈추지 않고 불판교착작업을 끝내 수평함으로써 삼자연지역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보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은 상원로동계급의 순결한 충정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았다.

파라기술로 세멘트중신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구의 노과밤을 이어가자 기술자들, 하루를 배반, 전담정당으로 여기기 위한 한걸음 줄기차게 달려온 상원지역생산과 화원관람, 삼정중신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정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한군이 그대로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될 줄라는 애국충정을 지닌 상원의 로동계급이 있어 삼자연군이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향으로 될 그날이 더욱 앞당겨지고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삼자연지역에 보내줄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호성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에서 삼자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자고 결심한것만큼 모든 대상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집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성에서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년간에 계획된 주요 자재들을 전부 생산하여 보내 주었다.

성에서는 산하단위들의 생산 실태에 맞게 주요자재들을 정확히 분담하는 한편 능력있는 일군들을 헌신에 내보내어 생산을 촉진기간에 다그쳐 관내 도록 조직사업을 제고하였다.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삼자연군구리에 필요한 화학제품생산에 애국충정의 마음을 비쳐가고있다.

삼자연군을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에는 앞서자신들이 지닌 임무를 깊이 자각한 성의 일군들은 중요생산단위들에 나가 이신직의 일본으로 생산자재 중을 적극 고루추출함으로써 굴지의 화학제품생산기지인 2.8비합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수심만만히 각종 유리제품을 생산하여 삼자연군구리 전투장에 보내주었다.

일군들은 삼자연군구리에 필요한 유리제품을 다그치기 위하여 원료, 자재보장

삼자연군을 로동당시대의 최후한 산간분화 도시로 훌륭히 꾸리는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들고 채취공업성과 화학공업성, 대안친선 유리공장에서 올해 말까지 주요자재생산계획을 완수하여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화학공업성에서

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삼자연군구리에 필요한 가성소다, 카바이트, 소산 등 화학제품생산 계획을 일일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포형원화학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폴리프로필렌과 수성마력의 수지마대를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하여 삼자연군구리에 절실히 필요한 염료용화사업에 필요한 노소비 세멘트중신을 적극 추종하였다.

관유리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용해조각과 원료배합을 기술적으로도 진행하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제고하면서 관유리의 질보장에 힘을 넣었다.

김사파와 포장직장, 상사직장의 종업원들도 생산한 관유리를 자그마한 용기라도 생김새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본사기자 전혁철

관유리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용해조각과 원료배합을 기술적으로도 진행하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제고하면서 관유리의 질보장에 힘을 넣었다.

김사파와 포장직장, 상사직장의 종업원들도 생산한 관유리를 자그마한 용기라도 생김새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본사기자 전혁철



평양시 건축재관리국에서

평양시 건축재관리국에서 삼자연군구리에 필요한 건축재료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증산전투에 박차를 가하여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축재관리국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리국 책임일군들은 모든 생산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혁명의 교향기를 자외시키고 있는 삼자연군을 로동당시대의 최후한 산간분화도시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생산조직과 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 들어 건축재생산을 밀고나가고있다.

삼자연군구리 전투장에 보내줄 건축재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전진하고있다.

온건화강석생산 일군들과 광부들은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연초부터 매일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드넓은 광천을 벌려

나가는 광부들의 투쟁에 너그러운 품도 함께해나갔고 오랜 기동부들도 용감 헌장을 떨쳐나와 일터마다 뛰어다니고 돌가공전투를 벌였다. 이들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에 떠날때 평안에서는 많은 땅의 돌가공파제를 제기하는데 훌륭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주철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삼자연군 구워진 하부방공사를 선행시키는데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제때에 필요한 땅의 땅을 들을 체재에 전담히 생산하였다.

평양시제강공장 평양수지전 재공장에서 제때에 필요한 재료를 자재로 풀어나가면서 건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삼자연군구리 전투장에 보내줄 건축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국에서 여러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상호지원을 넘김없이 발휘해나갔다.

평양전기건설공장 일군들은 정염여단의 형태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일신하기 위하여 년 초부터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수직차의 기술협이공에 공장에서는 정염여단형틀을 자재의 힘과 기술로 개조하고 질 좋은 건축재생산을 출기차게 밀고나갔다.

지난 10월말 긴급한 건축재생산과제가 새로 제기되었을 때에도 평양일군들과 종업원들

다종 뽑프와 전동기생산에서 혁신

안주뽑프 공장에서

안주뽑프공장에서 공화국창립 일흔둘을 맞으며 년간생산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삼자연군구리 전투장에 보내줄 각종 뽑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교향기, 백두산이해 첫 번째 삼자연군을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종업원들이 창조적열정을 발휘하도록 고루추출하고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 등 제각각과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대중기술혁신운

다종 뽑프와 전동기생산에서 혁신

다종 뽑프와 전동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교향기, 백두산이해 첫 번째 삼자연군을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종업원들이 창조적열정을 발휘하도록 고루추출하고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 등 제각각과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대중기술혁신운

다종 뽑프와 전동기생산에서 혁신

다종 뽑프와 전동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교향기, 백두산이해 첫 번째 삼자연군을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종업원들이 창조적열정을 발휘하도록 고루추출하고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 등 제각각과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대중기술혁신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6일 일리에서 평양시에서 위대한 단정으로 하는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반제자주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단정으로 하는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단정으로 하는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반제자주화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해놓고

평양국제 축구 학교 일군들과 종업원들

붉은 축구선수후비들을 위한 후방토대를 마련해놓는 일에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하지만 학교일군들은 유에서 보장해주는 불자 재를 받아 학생들에게 책임적으로 공급하는것으로는 만족할수 없었다.

나래의 훌륭한 축구인재육성을 위해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생활을 더 확보하기 위해 자체의 후방토대를 갖추어놓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보니 자재와 로력도 긴장하였지만 중요것은 부지가 없는것이였다. 학교의 일군들이 지혜를 짜내며 생각을 거듭하던 때 누군가가 크지 않은 면적으로도 먹을 볼수 있는 버섯재배장을 이미 세우는 건물을 내놓았으며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모두가 적극 지지해나갔다. 이미 세우는 건물을 리용하게 되니 부지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많은 자재를 필요하지 않고서도 그 먹을 특색이 있는 신종한 방안이었던것이였다.

이날 학교일군들은 한자리를 모아놓고 자체의 후방토대를 갖추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해놓고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해놓고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해놓고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베이징에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베이징에 도착

외무성 리용호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중국외교부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베이징에 도착

외무성 리용호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중국외교부 관계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호세인 로슬라비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친선의원단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호세인 로슬라비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친선의원단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호세인 로슬라비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친선의원단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이 6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질세워일들의 혁명적정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이 6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질세워일들의 혁명적정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이 6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질세워일들의 혁명적정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이 6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질세워일들의 혁명적정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월남대사관 성원들이 6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질세워일들의 혁명적정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란조선 친선의원단들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방직공기업으로

자주통일위업에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12월의 조국강선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대하가 되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오늘날은 온 겨레의 심장에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로 영성교육제시는 우리 장군님.

물어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한생이었다. 열렬한 통일외교로 심장을 끓이시고 숭고한 민족애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새겨가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 자욱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게 이로써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조국통일 구상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시어와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불타는 조국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행진선봉을 이끄셨고, 민족의 단합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시어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고귀한 헌신의 한생이었다. 인류역사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며 시대의 민족애에 영연할만한 업적을 쌓아올린 시인인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애국의 정성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준은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통일이었다. 분열의 비극속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삼천리강토에 하루빨리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눈보라, 비바람을 많이도 맞으셨고 험한 길도 수없이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지위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민족의 분열을 막는다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을 마음과 뜻을 둔 사람이라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끝까지 이룩하기 위하여 두텁은 최선의 애국투쟁이다. 일군들은 당사업에 해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경제사업에 해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대외사업에 해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밀접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교시하셨다.

장학에 비가 내리듯 조국통일문제에 잠 못 이루셨고 아름다운 명칭을 찾으시여도 온 겨레가 복을 누릴 그날을 그려보시던 우리 장군님, 자주통일과 민족통일의 전성기를 펼쳐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심혈과 도고 다하셨던 그 나날에는 온 겨레의 다름없는 축복속에 계시어 한 단생일이다.

주제64(1975)년 2월 16일, 이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물어가이 부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가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어머니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함께 의논해보라고 하시었다.

장사스러운 2월의 명절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볼까하여 모시기 된 일군들은 끝없는 기쁨과 함께 축하를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그들을 정중히 물리면서 간고하고 어찌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 일 없었고 오히려 일군들이 신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밤늦게까지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비상한 통찰력으로 남조선정세를 하나하나 분석해주시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뜻깊은 그날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어찌 그같은만한 한것이었나.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폭풍과 제기바람으로 이어진 천지지도강령군경에도 새겨져있고 최전선의 한문초소에도 이었다.

정말 눈물없이 말할수 없고 적정없이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은 안락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이 약탈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든 난파와 세기를 이어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은 반물질세력을 압도하여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어 갔다.

인제인가는 이렇게 있는 법같이 조국통일에 가망이었다면 나는 이제라도 택리, 천리를 더 가고싶다고 절절히 표시하시던 우리 장군님, 자신께서 위대

조국통일의 날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놀라우시며 어쩌다 저찌든 후식마저 뒤로 미루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애국의 열과 정을 장그려 온아부으시며 조국통일문제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오시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업적을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세신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산을 관철하여 삼천리강토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확고한 의지밑에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고계신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비범한 영도에 의해 흠뻑에 흠뻑과 세차례에 걸쳐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49일정당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미국에 처했던 북남관계는 개선의 궤도에 들어서고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은 대화와 평화로 지향되고있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애국의 뜻과 의지를 높이 만들어 나갈 때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해피의 온겨레의 확신이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헌명한 영도마라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의 남녘을 거머잡아 이 땅에서 찬란한 현실로 꽃피울것이다.

《조선, 12월의 눈》

민주풍고단체 불레쥬 발행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주에 즈음하여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1월 14일 불레쥬를 발행하였다. 불레쥬는 《조선, 12월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시술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12월의 눈은 한양 지역의 눈이 아니다. 김정일영도자와 영결하던 2011년 12월 조선에는 류탈리 많은 눈이 내렸다.

물어보면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윈눈은 윈눈과 특별한 연고를 맺고 계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체사상 지지회화신 항일투쟁투쟁의 거점이었던 백두산일대에서 탄생하시었다.

윈눈에 대한 그이의 남다른 정서는 윈눈철학이라는 숭고한 인생관을 낳았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추위가 닥쳐들면 소리없이 내리고내려대지를 포근히 품어안아주고 따스한 몸담이 오면 스스럼없이 고스란히 녹아 내리며 지양없이 로 스며드는 윈눈처럼 끝없는 헌신의 한생을 사시었다.

그이께서는 윈눈처럼 순결하고 정갈하며 재정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인생관을 지니시고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제국주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전시회

튀르키예에서 진행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전시회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앙카라에서 11월 15일과 16일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서는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사진판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헌명한 영도밑에 일일단정의 위대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에 대한 사랑만큼은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튀르키예의 각계 인사들과 관공들, 이 나라 주대 우리들과 동맹친선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사일개발 및 시험을 계속할 입장 강조

이란무역 대변인이 2일 미사일개발 및 시험을 계속할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반 마약 투쟁 강화

최근 중국의 사동성 공안국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성적으로 195건의 마약범죄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27명의 범죄자를 구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내몽골자치구에서는 특별대형마약밀매사건이 드러나 11건의 마약범죄행위가 압수되고 7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한다.

감포에서 올해에 불어 11월 까지 기간에 약 7 230건의 마약범죄행위를 적발하여 524kg이상에 달하

약 300명의 시위자를 체포하였다. 20명의 안전군을 포함하여 110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여러 나라 협조

프랑스가 제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또한 튀르키예와 3일 실행 중에 있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및 개발협력계획을 기한내에 끝내기 위해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마르코프 체르코가 4일 경제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이집트수령국인파라인디의 중앙은행이 화폐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럽군장설문제를 놓고 격화되는 모순

독자적인 유럽군장설을 주장하는 유럽과 어떻게 하나 구분하는 유럽과 미국의 모순이 한층 격화되고있다.

연방군장설과 유럽군장설은 유럽이 미국의 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온 남남에 와서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진행중인 1차 세계대전중 100만명 기념행사준비로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 대유럽으로 집현한이해 그는 《전쟁중 유럽군을 가질 결심을 하지 않은 한 우리는 유럽인들을 보호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유럽군을 창설할때에 대해 주장하였다.

도이쥘란트 수상도 프랑스대통령의 제의에 한해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진행중인 유럽회의 회의에서 유럽공동체연합이 나토를 보강할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전쟁중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기의 견해를 후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유럽동맹의 독자적인 무력장비수용을 나토를 통하여 유럽에 대한 군사적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수 없

게 되어있다.

오래전부터 유럽동맹은 미국 주도하의 나토에서 벗어나 자체의 유럽군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프랑스가 제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또한 튀르키예와 3일 실행 중에 있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및 개발협력계획을 기한내에 끝내기 위해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로키아(위협)을 운운하면서 2014년에 나토성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나토에 지불하는 국방비율 10인년에 국내총생산액의 2%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나토에 대한 지휘권을 유럽군과 나누어갈 용의가 없다. 정부나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반인륜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진이 일제 강점기 반역행위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새로 공개하였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매일한보 고서》에는 판도의 이진 지사였던 배대준과 백민만이 일본군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실들이 수록되어있다. 그에 의하면 1942년 1월 3일 일본군사령관이 부대를 정찰시찰을 당시 그의 뒤에 70여명의 여성(일본군성노예)이 붙어서 서있으며 그들은 인차 관대행영으로 끌려갔다.

또한 이번엔 발견된 문서중에는 《7명의 위안부가 검진과 치료를 위해 미국인병영에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담긴 판도주둔 미군사령부의 군정보고서와 싸이판에서 일문초소(위안소)들을 묘기한 지도도 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인성들을 머니면 남태평양 지역의 최전방파괴자 성노예로 끌어들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사실은 적지 않은 목격자, 피해자증언을 통해 이미전에 폭로된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공문서와 발견된것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번엔 발견된 자료들은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년간 일제의 친인공노획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증거자료들은 계속 발굴, 공개되고있다. 올해에 밝혀져서인도 1944년에 일본군이 중국 운남성에서 성노예들을 학살한 사실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비롯한 립증자료들이 적지 않게 공개되었다.

그런데도 아베를 비롯한 일본정객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뱉대면서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자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일본은 대이상 역경을 오그람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목숨에 끼인 만고죄악들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르어야 한다.

반인륜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물어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한생이었다. 열렬한 통일외교로 심장을 끓이시고 숭고한 민족애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새겨가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 자욱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게 이로써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조국통일 구상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시어와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불타는 조국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행진선봉을 이끄셨고, 민족의 단합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시어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남성간담보

에로이에서 3일 남성간담보의 권장보호를 위한 양에방정중을 시작하였다.

이 나라 보건성은 다음에 7월 초에 끝나는 현 회계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110만명의 젊은 나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국의 비난을 일축

로키아반인륜죄악의 시기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로키아 강점기 때 보다 짧은것이며 싸일철첩죄악을 위반하고있다

그는 미국의 비난을 일축하였다.

그는 미국측의 외교적조치에 대한 수다스러운 설명에는 로키아 조약의 위반행위로 세계사회의 이목을 떠돌기 위한 시도가 잘려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로키아와 폴스카에 있는 미사일기지들에서 증거리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기술자 부족에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해양공원

해양보호의식을 주고 그들이 잇을수 있는 흥미진진한 체험을 하게 해주었다.

세계적인 해양공원들중에는 환경보호-리용형, 환경보호-주체형공원을 두가지로 나눈다. 이공원은 바다에서 사시하는 바다거북과 바다의 생물다양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꾸려놓는것이다.

이와 같이 독특한 바다경치와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해양보호형의 해양공원은 1977년에 건설된 홍콩해양공원과 같이 바다경치와 바다생물들의 서식상태를 보호할 목적으로 꾸려진것이 주체형해양공원이다.

최근년간 홍콩해양공원이 바다경치를 기본주제로 하면서 이와 대조되는 다른 부수체들을 결합시켜 개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아내고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해양공원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기술자 부족에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주 일 미 군용기들 추락

일본의 고체현날다사상에서 6일 미해군수속 KFA-182편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주 일 미 군용기들 추락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주 일 미 군용기들 추락

이러한 미ષ업시회와 전민적 인 국민애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역제력강화정책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이 것은 윈눈의 강인고정분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들여 이란을 적대시하고 프랑스의 바리에서 1일 당국 의 연료세와 생계비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연료세와 생계비를 올린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